

금호타이어, 일본 최대 부품전시회 참가

금호타이어는 1월15-17일 열리는 <2010 일본 도쿄 오토살롱> 전시회 참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영업 활동에 나선다.

도쿄 오토살롱 전시회에서 금호타이어는 친환경 <에코윙> 시리즈, 럭셔리 스포츠 세단용 <엑스타LE>, 스포츠유틸리티차량(SUV)용 <로드벤처> 등과 함께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콘셉트타이어를 선보일 예정이다.

금호타이어는 또 도쿄 오토살롱에 프리미엄 제품 수요층 및 튜닝 마니아들이 대거 찾는 점을 고려해 향기 나는 아로마 타이어, 드리프트용 컬러스모크 타이어 등 독자 개발한 제품들을 다수 전시할 계획이다.

금호타이어는 도쿄 전시회 외에도 1월 말 미주지역을 시작으로 세계 각지의 딜러 콘퍼런스 등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이를 통해 주요 해외 거래선을 점검하며 영업활동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.

1983년 시작해 2010년 28회째를 맞는 도쿄 오토살롱은 세계 350여개 주요 자동차 및 타이어 관련기업들이 참가하는 일본 최대 자동차 부품전시회로 매년 25만명 가량의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1/14>